

응급환자 보호자 공백 해소를 위한 「응급동행 매니저」 노인일자리 사업 제안

의견 내용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전주시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보호자 공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노인일자리 사업을 제안합니다.

현재 응급실에 이송되는 환자 중에는 독거노인이나 보호자가 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서울이나 수도권 등 타지에 거주하는 경우 응급실에 도착하기까지 수 시간 이상 소요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응급실 현장에서는 의료진이 환자 치료에 집중해야 하므로 환자의 정서적 안정, 상태 관찰, 보호자 역할까지 담당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특히 고령 환자는 불안감과 혼란이 커지고, 보호자가 없을 경우 검사 이동, 병실 입원 준비, 환자 상태 확인 등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전주시가 노인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응급동행 매니저」 제도를 도입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응급동행 매니저는 일정 교육을 받은 신중년 및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응급실에서 보호자가 도착할 때까지 약 2~3시간 동안 환자 곁을 지키며 정서적 지원과 기본적인 돌봄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응급환자의 정서적 안정 지원
- 환자 상태 변화 확인 및 의료진 전달
- 보호자 도착 전 응급실 내 동행 지원
- 병실 이동 및 입원 절차 보조
- 보호자와 병원 간 연락 지원
-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응급환자 지원

이 사업은 의료행위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응급상황에서 발생하는 보호자 공백을 메우는 역할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전주시는 이미 노인일자리와 신중년 사업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적 자원을 활용한다면 응급실의 돌봄 공백을 줄이고, 어르신들에게는 사회참여와 일자리 제공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현재, 응급환자 곁을 지켜주는 사람 한 명의 존재가 생명과 안전, 그리고 가족의 불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전주시가 전국 최초 또는 선도적으로 「응급동행

매니저」 사업을 추진하여 응급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혁신적인 복지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